

중산층 삶·욕망 투영된 우리시대 자화상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만큼 복잡다단한 의미로 환기되는 공간은 없다.

하우스푸어, 베이비부머, 88만원세대, 양극화... 이들 단어와 가장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게 아파트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와 맞물려 아파트가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더 이상 부의 증식 수단이라니 사실은 사안이 관념적이지만 문제는, 너도나도 빛을 내 아파트를 산 이들이다. 흔히 말해 '상부'를 잠은 이들은, 대출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중산층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곁들여진 욕망과 삶을 시대의 자화상이자 게임으로 규정할 이가 있다. 디자인 연구가이자 홍익대에서 디자인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박해천씨가 펴낸 '아파트 게임'은 중산층과 아파트와의 관계를 세대별로 면밀하게 추적한다.

중산층 신화에 본격적으로 경도등이 켜지기 시작한 때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다. 저자는 이때부터 부동산 활황세가 막을 내렸고 중산층은 하우스푸어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로 분화되었다고 본다.

사실 한국 사회의 중산층은 몇 차례의 버블과 정부 주도하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가시화가 드러난 1960년대 후반, 제2차 유통 과잉이 찾아온 1970년대 중·후반, 3차 호황의 1980년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직후 찾아온 바이코리아 열풍 등이 대규모 아파트 건



'아파트 게임' 박해천 지음

결과 맞물려 있다.

저자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기존의 세대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즉 4·19세대, 유신세대, 386세대 등 개별 세대가 겪은 정치적 경험에 따른 세대 구분보다 아파트 시장 추이와 맞물려 진행된 '내집 마련 시기'에 따라 세대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과 아파트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달성한 이들은 정치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 반대의 사람은 정부 정책이 아파트 앞에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절망 때문에 더 이상 정치를 기대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아파트 권수와 자녀에게 중산층의 이름을 증여하는 일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감당해야만 가능하다.

"아파트의 하락세와 저임금의 위기. 그 사이

에 파리를 틈 이들 세대의 불행은 자녀 세대에 고스란히 전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자녀 세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한 채는 그래도 물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빗대기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 다수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걸 가져본 적 없는 월세 인생을 일 것이다."

저자는 중산층으로의 사다리에서 사라져버린 21세기 30대가 된 신세대를 주목한다. 그 가운데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원룸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살펴본다.

이전까지 중산층 상당수가 통과역처럼 거쳐 갔던 하숙방과 빌립방, 월세방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벗어나기 어려운 주거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얹혀살거나,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노래방, 피시방, 찜질방이 집의 기능을 대신한 공간으로 고착화된다.

이처럼 방의 기능을 외부화한 앞서와 같은 공간에 지불하는 비용이 임대료다. 이 임대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순환한다. 하나는 세입자-집주인-은행의 경로를 따라, 또 하나는 고액-저임금 자-건물주-은행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가계대출로 순환한다.

서로의 피리를 문 뺨 '우로보로스'처럼 순환하는 착취의 고리 안에서, 저급의 중산층과 아파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요원해 보인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울퉁불퉁 세상, 어제가 될 오늘을 기억합니다

'이 인간이 정말'

성석제 지음

이야기꾼 성석제가 2008년 출간한 '지금 행복해' 이후 5년 만에 신작 소설집 '이 인간이 정말'을 펴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한 단편집으로,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에" 집중하는 특유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성석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기보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작가다. 주변에서 익숙하게 벌어질 때는 느끼지 못하는 재미도 작가 성석제의 손을 거치면 재미난 이야기로 가공된다. 평론가 서영재의 표현대로 하면 "능청꾼이 되 한두 번 정도의 실패에는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요한 능청꾼"이다.

표제작 '이 인간이 정말'은 엄마의 주선으로 맞선 자



리에 나온 백수의 이야기다. 상대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쉴 새 없이 늘어놓는 백수 때문에 아가씨는 질리고 만다. 다른 단편에 비해 짧은 '외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늘 입고 다녔던 외투를 물려받은 화자의 이야기다. 그는 외투가 아버지처럼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점차 그것에 친숙해진다.

작가는 "이 책에 묶인 소설들은 격렬한 기후 변화와 세계화의 와중에 쓰여졌다. 그만큼 울퉁불퉁해진 세상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오늘이 어제의 기억으로 지워져서 현재를 기억함으로써 미래가 생성된다. 잊지 말지, 기억의 검과 방패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끊임없이 망설이다 결국엔 혼자 되는 시간

'눈사람 여관'

이병률 지음

"덜덜하게 버려진, 깊은 밤엔/ 누구나 완전히 하나/ 가볍고 여러어/ 할 말로 몸을 이루는 하나// 오래 혼자일 것이므로/ 비로소 영원히 스며드는 하나// 스스로를 담아내고 스스로를 마시는/ 그리하여 만년설 덮인 산맥으로 응기하여/ 이내 녹아내리는 하나." ('혼자 중')

참나에서 찬란을 발견해내는 이병률 시인이 새 시집 '눈사람 여관'을 펴냈다. 1995년 등단 이후 세 권의 시집을 통해 특유의 바삭 없는 '슬픔'과 깊고 조용한 '음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생의 안팎에 새겨져 있는 '절박함'이 투영된 시어들을 선보여온 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이러한 감정과 정서보다 더 근원적인 지점을



찾아 나선다. 어쩌면 마음속 깊이 숨겨진 어떤 '현' 하나를 슬쩍 건드리고 그 진동을 통해 돌연 드러나는 '존재'를 고찰하는 일, 그 '존재'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처연(悽然)을 묻고 또 묻는 시인의 행보는 정처 없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에게로 향한다. 혼자됨을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자 내포하는 의미들은 여럿일 터. 시집 속에서 시인은 사소하다. 끊임없이 망설이고 결국엔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여관 앞에서/ 목격이라는 말이 서운하게 느껴지는 건 그런 거지요// 눈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가요/ 거짓을 생략하고/ 이별의 실패를 보려." ('눈사람 여관' 중) 〈문학과지성사·8000원〉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결과 1·2'

히라노 게이치로 지음

10년 전 '일식'으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히라노 게이치로 신작 소설 '결과'(전 2권)가 나왔다.

책 제목으로 쓴 '결과'는 댄이나 제방 등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한계를 넘어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을 뜻한다.

지방 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회사원 사와노 료스케는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보이는 듯 하지만 엘리트 공무원인 형 다카시에게



묘한 열등감을 가져왔다.

어느 날 출장지에서 실종된 료스케가 토막사체로 발견되고 다카시는 동생을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 이후 비슷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도시는 악몽 속으로 빠져든다.

작가는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을 통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문학동네·각권 1만3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삶의 슬픔에 대한 성찰

'슬픔이 있는 모서리'

박미경 지음

초당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인 박미경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슬픔이 있는 모서리'가 나왔다.

시집은 시인 자신의 존재론적 기원과 삶의 슬픔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시인은 아프게 통과해 온 지난 시간을 재현함은 물론 자유의 기록을 담담히 노래한다.

지난 시절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시대에 대한 성찰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삶을 지향하는 근원적 원리로서,



정신 차원의 것이기도 하고 태도 차원의 것이기도 한다.

유성호 평론가는 "박미경의 시편들은 지상의 존재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토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가없는 실천적 의지를 담은 고백록"이라고 평한다.

2006년 '정신과 표현'으로 등단한 시인은 인문학 전공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시집으로 '꽃물연가'를 펴냈다. 〈문학동네·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라도엔 '육학년'은 없고 '유강년'만 있다

'방언정답'

한성우 지음



한성우의 '방언정답'은 방언 기행이다. 오랜 연구로 얻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방언을 깨운다. 출신지에 따라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투리의 양상을 보여준다. "전라도에는 '육학년'은 없고 '유강년'만 있다. 평안도에는 '차간 남자'만 있다." 저자는 일상에 숨은 방언학을 발견하고, 방언학을 생생한 이야기거리로 만든다.

책은 방언 속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들도 되짚는다. 말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소통을 만드는 '방언의 인문학'이라 할 수 있다. 〈어크로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마시멜로 세 번째 이야기=6년 만에 돌아온 '마시멜로 이야기'의 결정판. 책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수단과 지식, 방법을 알려준다. 또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릿속을 효과적으로 재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에 대해선 이보다 당당한 만족을 찾는 것이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다. 〈21세기북스·1만4000원〉

▲성장 없는 변명=세계 인구가 90억 명이 되는 시점에 모두가 OECD 국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풍요로움에 도달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2050년까지 15배 이상, 금세기말에는 40배 이상의 경제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까.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사회적·심리학적 연구와 세계적인 석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장의 마법에 걸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명쾌하게 분석한다. 〈착한책가게·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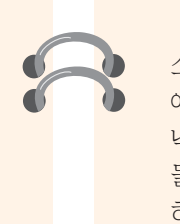
▲진짜 식품첨가물 이야기=값싼 원료를 보기 좋고, 맛도 좋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가루' 식품첨가물. 지금까지 TV, 언론과 책에서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기피해왔다. 하지만 조미료만 하더라도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과 100% 똑같은 '천연 발효 물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식품첨가물의 모습에 대해 알아본다. 〈예문당·1만3800원〉



▲공감 제로="공감의 침식은 어떻게 살인마를 낳는가?" 뇌 과학과 심리학으로 본격 해부한 공감의 맨얼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정신병리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심리학자 사이먼 배런코언은 뇌 과학과 유전학, 발달 심리학 등 최신 과학을 동원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비롯, 흔히 우리가 악마라 부르는 사람들의 뇌와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봤다. 〈사이언스북스·1만6000원〉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유대인 이야기 외="유대인의 머리로 생각하고, 로마인의 다리로 걸어라". 10대를 위한 계간 이야기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유대인 이야기', '행동하는 10대를 위한 로마인 이야기'가 나왔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속에서 본받을 점과 비판할 점을 선택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각이크는 숲생크림·각 1만5000원,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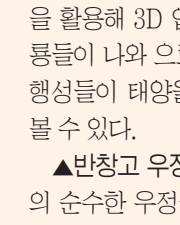
▲사이공 나이트=베트남의 호찌민에 모여든 한국 사내들의 음모와 배신, 비극적 죽음을 그린 장편소설로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이다. 정식 문학수업을 받은 적 없는 작가 지망생 정민의 처녀작인데도 심사위원들이 입을 모아 호평했던 작품으로 유명하다. 작가는 "시체들과 왕과 공주와 열간기와 열담꾼이 활보하는 그 옛날 식민지 거리의 검은 밤을 소설로 그려내고 싶었다"고 전한다. 〈나무옆의자·1만3000원〉



▲우물쭈물 하다가=소년의 장난으로 셀러드에 지렁이가 들어가고,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다. 작가 정지현은 당리당리를 막게 된다는 이야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해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중요한 일임을 알려 준다. 〈푸른숲주니어·1만원〉

▲작지만 나는 나=주인공 '알록달록한 작은 동물'은 작은 데다가 어떤 동물과도 닮지 않은 자신의 외모에 의문을 품고 여행을 떠난다. 세상에 자신과 닮은 동물이 없다는 사실에 점점 실망하지만, 마침내 자신은 그 누구와도 다른 '작지만 나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어린이나무생각·1만1000원〉

▲소아당뇨가 뭐지 알려 줄게!=어린이들에게 소아당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림책. 소아당뇨의 특성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를 도와준다. 당뇨는 왜 생기는지, 어떠한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인슐린 주사는 왜 맞아야 하는지, 위급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함울림스펠·1만3000원〉



▲공룡은 살아있다 외=전 세계 15개국에서 동시 출간된 국내 최초 스마트 체험 학습서 '공룡은 살아있다'. '움직이는 태양계'. 어린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로 도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스마트 폰을 활용해 3D 입체 영상을 체험할 수 있다. 공룡들이 나와 으르렁거리는 입체 영상과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습을 3D로 볼 수 있다. 〈아이위즈북·각 1만3800원〉

▲반창고 우정=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소녀의 순수한 우정을 담아낸 동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소녀의 마음이 섬세하면서도 민감함 있게 사건과 어우러져 전개된다. 책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사춘기를 겪게 될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친구처럼 가슴 설레게 들려주고 있다. 〈별출·1만5000원〉

어린이 책꽂이